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表東人』에 관한 일고찰*

박선이**

「차 례」

1. 들어가며
2.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의 체제 및 구성
3. 科試 참고서로서의 가치와 의의
4. 나가며

[국문초록]

『表東人』은 『英祖實錄』과 조선 후기 필기야담집과 개인 서간에서 문장 학습 및 科文 학습과 관련하여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이다. 필자가 고찰한 결과, '表東人'을 표제로 한 책은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모두 5종의 필사본이 현전한다. 이 가운데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만송 D5 A125]은 이전 科試 참고서와는 체제와 구성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여타 도서관에 소장된 『表東人』과도 그 성격이 확연히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고려대 소장 科試 참고서인 『表東人』을 중심으로 『表東人』의 구성 및 체제를 검토하고, 『表東人』이 科試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의를 규명하였다.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은 類抄類에 속하는 科試 참고서로, 漢代~宋代의 皇帝를 表題로 한 64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表東人』에 수록된 작품은 역사서에 수록된 인물 및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고사들을 여러 對句로 조합하고 활용하는 양상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科表 작성과 학습의 실재를 엿볼 수 있다.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이 科試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表東人』은 자료의 성격으로 볼 때, 역사서에 수록된 중국의 역대 황제와 관련된 고사를 활용하여 科表의 구성요소인 對偶를 갖춘 각 구절을 어떠한 방식으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732).

**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공동연구원 / dudu0218@naver.com

실제 작법에 활용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類抄類 참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당대 科表 학습 과정에서 習作의 典範으로 여겨졌던 작품들을 살필 수 있는 科表選集類와는 달리 『表東人』은 보다 구체적인 科表 작성 과정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인물고사와 사건고사를 활용한 다양한 對句의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故事를 科表의 작법에 적용하는 실재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表東人』은 조선 후기 科表가 정형화되는 일련의 양상과 그 흔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科試 참고서, 科文, 科表, 表東人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부류에 속하는 『表東人』을 대상으로 그 체제와 구성을 검토하고, 『表東人』이 科試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 초기 科擧가 시행된 이후로 많은 科試 참고서들이 제작되어 유통되었다. 科試 참고서는 효율적인 과거 공부를 위해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우수 답안, 시험에 나올 법한 구절들과 예상 문제들,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문구들을 모은 텍스트이다. 이러한 科試 참고서는 조선 후기에 더욱 활발하게 제작되고 유통되었으며, 그 종류 역시 다양하다.

지금까지 科試 참고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각 기관에 소장된 주요 科試 자료들의 존재 양상을 규명하고 각 자료들의 종류와 유형 및 성격을 논한 연구¹⁾, 科試 참고서를 통해 조선시대 수험 문화의 단면을 조망한 연구²⁾, 科試 참고서 가운데 科表 작성을 위한 참고서를 대상으로 科表 문체의 특성과 글쓰기 방식을 규명한 연구³⁾, 조선 후기 주요 科試 참고서를 주목한 연구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주요 科試 참고서들의 존재 양상을 확인하고 科

1) 이상욱(2015), 17~20면; 박현순(2021), 77~126면.

2) 허경진, 최영화(2014); 심경호(2015).

3) 이상욱(2017).

4) 황위주(2014); 백진우(2014); 박선이(2020).

試 참고서에 담긴 조선 시대 科文 학습과 科文 작성의 실제적 면모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러나 科試 참고서 부류에 속하는 텍스트 중에는 여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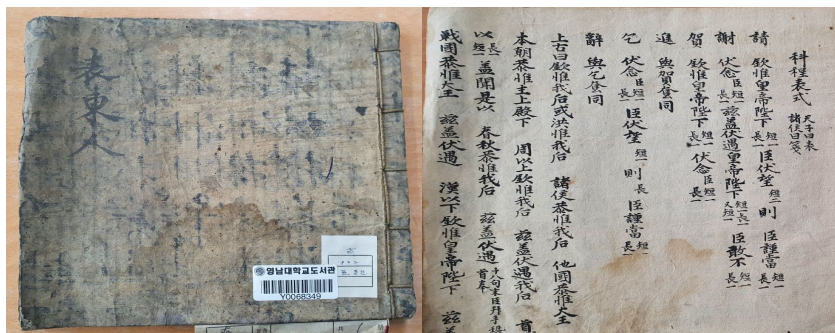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表東人』 역시 科試 참고서에 속하는 텍스트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이다. 『表東人』은 科表의 작성과 학습을 위해 科表에서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역대 중국 왕조의 황제와 관련한 科表 구절들을 모아 제왕별로 분류하고 편집한 科試 참고서로, 이전 科試 참고서와는 체제와 구성면에서 많은 변별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을 중심으로 『表東人』의 체제와 구성을 검토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 『表東人』이 조선 후기 科表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 및 의의를 논해보고자 한다.

2.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의 체제 및 구성

필자가 검토한 결과, ‘表東人’을 표제로 한 필사본은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모두 5종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表東人』은 표제만 동일하고 편찬자와 편찬 시기, 체제와 구성은 서로 다른 필사본이다.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의 체제와 구성을 살펴 보기에 앞서 영남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 소장된 『表東人』을 중심으로 현전하는 『表東人』의 구성과 체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대학교에는 총 2종의 『表東人』이 소장되어 있다.⁵⁾ 『表東人』[古802-표동인]은 1책의 필사본으로 겉표지의 표제는 ‘表東人’으로 되어 있으나 속표지의 표제는 ‘東儒抄選’으로 되어 있으며, 속표지면에는 이 책의 편찬자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小春日亭散人草’라는 기록이 있다.

5) 『表東人』[古802-표동인], 『表東人』[古克 811.9-표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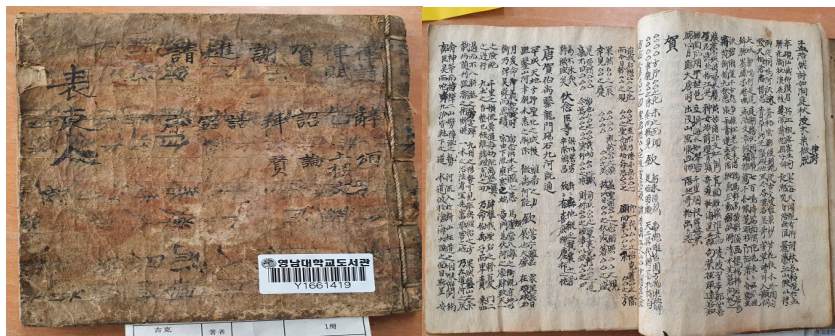


〈그림1〉『表東人』[古802-표동인]의 표제면

〈그림2〉『表東人』[古802-표동인]의 본문 첫면

이 책의 앞의 1~2장에는 科表 작성을 위해 科表의 세부 문체인 請表謝表賀表進表乞表의 기본 투식과 상투어를 정리해놓은 「科程表式」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조 대에 활동했던 문인들의 科表 7편을 비롯하여 科表의 기본이 되는 對偶를 학습하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鄭顯德(1810~1883)의 「請助文」 등이 필사되어 있다. 고종 대에 東萊府使를 역임했던 鄭顯德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19세기 후반 이후에 편찬된 책으로 생각되며, 科表의 程式와 함께 科表 작품들을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科表의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科試 참고서로 추정된다.

『表東人』[古克 811.9-표동인]은 1책의 필사본으로 표지에 '表東人'이라는 표제와 함께 '律詩, 律賦, 賀, 謝, 進, 請, 辭, 乞, 詔, 銘, 序, 頌, 上梁文, 論, 贊'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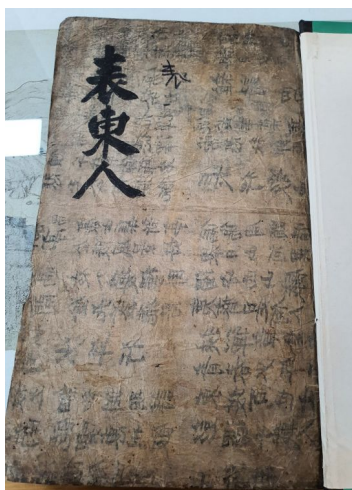
〈그림3〉『表東人』[古克 811.9-표동인]의 표제면

〈그림4〉『表東人』[古克 811.9-표동인] 수록 賀表 程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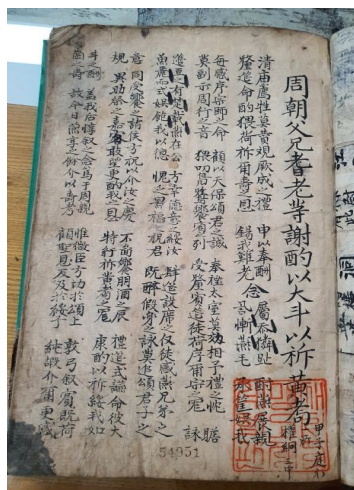
각종 문체가 적혀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의 문체들을 목차 형식으로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表東人’이라는 표제를 내걸고 있지만, 科表의 세부 문체 중 하나인 賀表 程式과 賀表 1편뿐 아니라 겹표지에 적힌 다양한 문체로 작성된 律詩, 律賦, 上梁文 등과 함께 『古文眞寶』, 『戰國策』, 『唐宋八大家文鈔』 등의 여러 고전에서 발췌한 문구들을 표제로 제시하고 해당 표제와 관련된 구절들을 정리해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科試 참고서뿐 아니라 문장 학습서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계명대 소장본 『表東人』[(오) 812.1 표동인]은 1책의 필사본으로 숙종, 영조 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실제 科擧에서 제출했던 科表 작품들을 科表의 세부 문체 별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림5〉 『表東人』[(오) 812.1 표동인]의 표제면



〈그림6〉 『表東人』[(오) 812.1 표동인]의 본문 첫면

편자를 짐작할 수 있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의 필사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록된 작자들의 활동 시기가 18세기 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책의 필사 시기는 18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본문은 1면당 1작품씩 기재하였으며, 본문의 구성은 크게 科表 작품의 제목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작품의 제목 아래에는 해당 작품이 작성된 시험 관련 정보와 작품을 작성한 작자의 이름, 해당 작품이 시험에서 받은 성적을 小字로 기재해두었다. 본문은 科表의 상투어들은 일부 생략된 형태로 필사되어 있으며, 상응하는 두 행의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2구씩 묶어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부터 활발하게 편찬된 科表選集⁶⁾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상으로 영남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 소장된 『表東人』의 구성과 체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영남대 소장본 『表東人』 2종과 계명대 소장본 『表東人』은 서로 다른 구성과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큰 범주에서는 모두 科表의 작성과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科試 참고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 책들은 현전하는 여타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에서 흔히 보이는 科表 程式를 수록하고 典範이 되는 科表를 모아 놓았을 뿐, 구성과 체제 면에서 여타 科試 참고서와 변별되는 특징적인 면은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만송 D5 A125]은 이전 科試 참고서와는 체제와 구성면에서 많은 변별점이 있으며, 여타 도서관에 소장된 『表東人』과도 그 성격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을 중심으로 科試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의 자료적 가치와 의의를 살피기에 앞서 이 책의 구성과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은 1책의 필사본으로, 「漢高祖」, 「漢惠帝」, 「漢文帝」, 「齊高祖」, 「梁武帝」, 「唐高祖」, 「唐太宗」, 「宋太祖」, 「宋太宗」 등 漢代~宋代에 이르는 황제를 表題로 한 63편과 시대를 表題로 한 五季 1편을 합쳐 총 6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科表는 堯舜時代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擬作한 작품이 주를 이루는데, 이 책에서 漢代~宋代까지만을 다루고 있는 점은 漢, 唐, 宋과 관련한 주제가 중심을 이루었던 조선 후기 科表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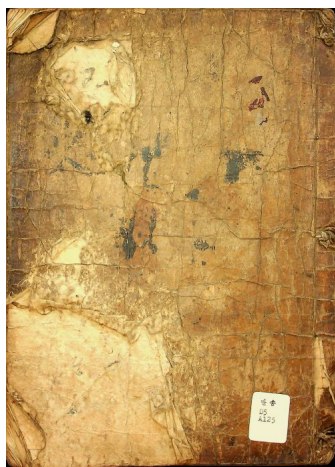
이 책에는 별도의 筆寫記나 序跋文이 없어 정확한 필사 시기와 필사자를 알 수 없다. 본문의 첫 면에 이 책의 소장자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장서인 4개가 있

6) 조선 후기 科表選集의 제작과 편찬에 대해서는 이상옥(2015), 37~38면에 자세히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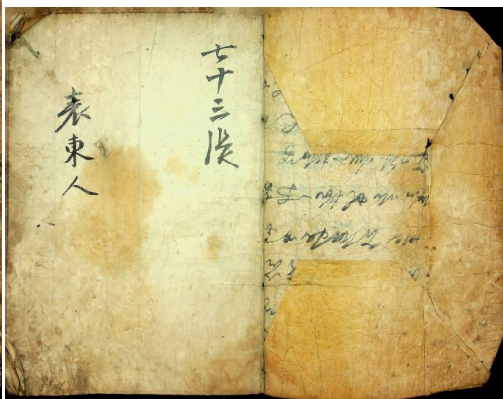
7) 科表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이상옥(2015), 198면 참조.

는데⁸⁾, 소장자는 英祖代에 星州牧使를 역임했던 金宇集(1668~1730)으로 추정된다.

『表東人』의 卷頭에는 책에 수록된 역대 중국 왕조 63명의 황제의 諡號 혹은 廟號가 목차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본문의 구성은 작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먼저 황제의 諡號 혹은 廟號를 기재하고 이어 『通鑑節要』, 『貞觀政要』, 『文獻通考』 등에 수록된 해당 황제의 傳記를 발췌하여 小字로 기재하였다. 이어 각 작품마다 해당 황제와 관련한 科表 구절을 짧게는 3구, 많게는 200여구에 이르는 구절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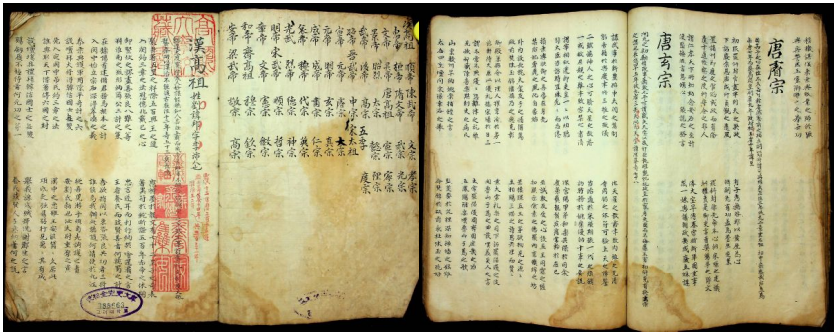


〈그림7〉『表東人』[만송 D5 A125]의
겉표지



〈그림8〉『表東人』[만송 D5 A125]의 속표지

8) 본문의 첫면에 있는 장서인의 내용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판독하면 첫 번째 장서인은 '盆城寶軸', 두 번째 장서인은 '金海世家', 세 번째 장서인은 '金宇集', 네 번째 장서인은 金宇集의 字인 '國安'이다.



〈그림9〉『表東人』[만송 D5 A125]의
목차와 본문 첫면

〈그림10〉『表東人』[만송 D5 A125] 수록
「唐睿宗」, 「唐玄宗」

다음으로, 『表東人』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 및 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를 위해 수록된 64편 가운데 「漢高祖」를 중심으로 각 구절의 출전과 문장 구성방식 등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漢高祖」는 조선시대 과거에서 科表의 試題로 자주 다루어졌던 대표적인 제제이다. 실제 科表에는 그의 명신이었던 蕭何, 韓信, 季布, 張良, 陳平, 陸賈 등이 表文을 올리는 주체로 등장하여 漢高祖를 위해 낸 계책을 운용하기를 청하는 내용, 漢高祖가 그들의 공훈을 치하한 일을 사례하는 내용 및 漢나라 신하들이 漢高祖의 넓고 큰 도량을 칭송하고 그가 이룩한 대업을 하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⁹⁾

『表東人』에 수록된 「漢高祖」의 일부 구절과 각 구절들이 근거하고 있는 출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9) 숙종~영조대 科擧에서 출제되었던 漢高祖와 관련한 科表 試題를 일부 들면 다음과 같다. 1681년(숙종7) 알성시 「擬漢韓信請以義兵從思東歸之士表」, 1698년(숙종24) 식년시 초시 「擬漢賈誼請勿絕居巢侯國仍令劉憲嗣爵以長克讓之風表」, 1705년(숙종31) 증광시 「擬漢陳平請以決獄問廷尉錢穀出入問治粟內史表」, 1719년(숙종45) 증광시 「擬漢韓信謝諭以丞相數言將軍將軍何以教寡人計策表」, 1721년(경종1) 식년시 복시 「擬漢群臣賀賞季布誅丁公表」, 1735년(영조11) 식년시 복시 「漢群臣賀至渭橋太尉周勃上天子璽符」, 1737년(영조13) 별시 초시 「擬漢群臣賀以蕭何爲韓韓信爲大將還定三秦表」.

10) 인용문에 제시한 각 구절은 여러 텍스트에 출전을 두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텍스트만을 출전으로 명시하였다.

■ 「漢高祖」

[1]

- 01 聚井著五星之祥/際五百興王之運 출전: 『史記』卷27 「天官書」
 02 入關約三章之法/慰億兆載己之心 출전: 『史記』卷8 「高祖本紀」

- 01 주요내용: 漢나라가 일어남에 五星이 東井에 모였다는 故事
 02 주요내용: 漢高祖가 關中에 들어가 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세 조항을 약속한 約法三章의 故事

[2]

- 03 却堅儒之謬畫/善張良八難之籌 출전: 『史記』卷55 「留侯世家」
 04 料淮南之叛形/納薛公三計之策 출전: 『史記』卷91 「黥布列傳」
 03 주요내용: 酈食其의 계책을 따라 六國의 후손을 봉해줄 인장을 새겼다가 張良의 여덟 가지 不可한 이유를 듣고 인장을 녹인 故事
 04 주요내용: 淮南王 黥布의 배반을 薛公이 예측한 故事

[3]

- 05 在櫟陽首建儲君/務爲根本之計 출전: 『資治通鑑』卷9 「漢紀·太祖高皇帝」
 06 入關中始立宗廟/深得萃渙之義 출전: 『資治通鑑』卷9 「漢紀·太祖高皇帝」
 05 주요내용: 漢高祖가 櫟陽으로 돌아와서 劉盈(漢惠帝)을 太子로 삼은 故事
 06 주요내용: 漢高祖가 楚나라 項羽에게 대패하고 난 뒤 關中을 지키고 宗廟와 社稷을 세운 故事

[4]

- 07 參乘典護軍/用陳平奇計之六 출전: 『史記』卷56 「陳丞相世家」
 08 設壇拜大將/得韓信國士無雙 출전: 『史記』卷92 「淮陰侯列傳」

- 07 주요내용: 陳平이 楚나라 都尉로 漢나라로 망명하였을 때, 漢高祖가 參乘典護軍에 임명하고, 陳平이 謀畫한 여섯 가지 기이한 계책을 漢高祖가 썼던 故事
- 08 주요내용: 蕭何가 漢高祖에게 韓信을 천거할 때 둘도 없는 國士라고 추천하고, 漢高祖가 韓信을 大將으로 임명하면서 특별히 단을 만들어 의식을 거행했던 故事

[5]

- 09 先入定關中/吊民約三章之法 출전: 『史記』卷8 「高祖本紀」
- 10 誰與取天下/借箸停六國之封 출전: 『史記』卷55 「留侯世家」
- 09 주요내용: 漢高祖가 關中에 들어가 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세 조항을 약속한 約法三章의 故事
- 10 주요내용: 酈食其의 계책을 따라 六國의 후손을 봉해줄 인장을 새겼다가 張良의 여덟 가지 不可한 이유를 듣고 인장을 녹인 故事

[6]

- 11 設壇場具禮/拜韓信國士之無雙 출전: 『史記』卷92 「淮陰侯列傳」
- 12 賜劔履不趨/待蕭何元功之第一 출전: 『漢書』卷39 「蕭何列傳」
- 11 주요내용: 蕭何가 漢高祖에게 韓信을 천거할 때 둘도 없는 國士라고 추천하고, 漢高祖가 韓信을 大將으로 임명하면서 특별히 단을 만들어 의식을 거행했던 故事
- 12 주요내용: 蕭何의 공을 첫째로 삼아 허리에 검을 차고 신발을 벗지 않고 殿陛에 오르게 한 故事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漢高祖」에 수록된 구절의 출전은 『史記』의 「高祖本紀」, 「留侯世家」, 「黥布列傳」, 「陳丞相世家」, 『漢書』의 「蕭何列傳」으로, 각 구절은 漢高祖와 한나라 개국에 공을 세웠던 인물인 韓信, 蕭何, 張良, 陳平과 그들과 관련된 故事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동일한 출전에서 추출

된 인물과 사건이라도 실제 對句를 구성할 때에는 한 구절의 용례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對句를 구성하는 용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02와 09는 모두 『史記』「高祖本紀」에 수록된 漢高祖 고사를 인용한 구절로, 漢高祖가 秦나라 수도 咸陽을 함락한 뒤에 秦나라의 가혹하고 번다한 법률을 폐지하고 세 조항으로 간략하게 줄여 시행할 것을 關中의 父老들에게 약조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두 구절 모두 동일한 내용의 고사를 인용하였지만 자구의 구성과 표현 방식은 상이하다. 02는 7·7자로 ‘關中에 들어가 約法三章으로 억조 백성이 추대하는 마음을 위로하였네[入關約三章之法, 慰億兆戴己之心.]’로 대구를 구성하였으며, 09는 5·7자로 ‘먼저 들어가 關中을 평정하고 約法三章으로 백성을 위로하였네[先入定關中, 吊民約三章之法.]’로 대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02는 [1]구에서 漢高祖가 왕업을 이루는 초기에 函谷關에 들어가자 五星이 한 데 모이는 길한 징조가 있었다는 고사에 근거한 구절을 활용하여 대구를 구성하였다. 반면, 09는 [5]구에서 漢高祖가 酈食其의 계책을 따라 六國의 후손을 왕으로 봉해줄 인장을 새겼다가 張良이 여덟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자 張良의 계책을 따라 인장을 녹인 고사에 근거한 구절을 활용하여 대구를 구성하였다. 09와 대구가 되는 10은 앞선 [2]구에서 薛公이 예상한대로 鯨布가 漢高祖를 배반했다는 고사에 근거한 구절과 6·7자로 대구를 구성하였다.

科表의 작성과 학습에 있어 이러한 과정은 역사서에 수록된 인물 및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고사들을 여러 對句로 조합하고 활용하는 양상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科表 작성과 학습의 실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科試 참고서로서의 가치와 의의

앞 절에서는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의 구성 및 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조선 후기에 『表東人』을 언급한 관련 글을 근거로 『表東人』이 과연 어떤 성격의 科試 참고서였는지를 규명하고, 다른 科試 참고서와의 변별점을 비교·검토하여 그 가치와 의의를 논해보고자 한다.

『表東人』은 어떤 성격의 科試 참고서였을까? 『表東人』의 실체를 추정할 수 있

는 자료 가 드물기에 『表東人』을 언급한 조선 후기 인물들의 글을 중심으로 『表東人』이 어떤 성격의 科試 참고서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아래에 제시된 『承政院日記』 영조 12년 2월 26일의 기사에서 『表東人』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소신은 글귀를 따라 문장을 지었을 뿐 아니라 그저 『表東人』만을 보았고, 어렸을 때에도 『詩傳』의 雅와 頌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석에 오르게 되었을 때는 늘 문장을 지으며 뜻을 고심할 때마다 근근이 책임을 면하기에 바빴고 말에 순서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周易』을 진강할 때는 약간의 註說을 가지고는 문맥의 뜻을 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문하실 경우에 전혀 모르는 뜻을 소신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제 분수를 잘 알고 있으니, 공무를 수행하고 싶지 않습니다.¹¹⁾

이 기사는 英祖가 당시 시독관이었던 吳彦胄(1688~1741)에게 『周易』의 進講을 맡기려 하자, 吳彦胄가 자신의 문장 수준을 겸손하게 말하며 『周易』의 進講의 임무를 사양하는 내용이다. 吳彦胄는 자신은 그저 옛사람의 글귀를 여기저기서 뽑아 詩文을 짓는 정도의 문장공부를 하였고 『表東人』만을 학습하며 문장을 익혔기 때문에 『周易』을 제대로 進講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吳彦胄의 언급에서 『表東人』이 당시에 문장 학습에 필요한 기초학습서로의 성격을 지녔던 참고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表東人』이 과문 학습과 관련된 참고서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글을 보면 『表東人』이 일반 문장을 짓는 기초학습서보다는 과문 학습과 관련된 참고서로서 활용되었던 자료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시험장에 들어올 때 사춘누이가 약과 두 덩이를 찢어진 책장에 싸주며 말했다.“시험장에서는 필시 배가 고폴 터이니, 꺼내 드세요.” 이때 座首는 소매 속을 더듬어 약과를 꺼내 먹은 뒤 책장을 보았는데, 이 책장은 『表東人』의 일부였다. 책장에는 깨끗하게 써진 表 1편이 필사되어 있었는데, 책장에 쓰여진 試題가 시험장에 내걸린 試題와 한 글자도 다르

11) 『承政院日記』 英祖 12年 2月 26日. “小臣不但尋章摘句而已, 只看『表東人』, 兒時亦不讀詩傳之雅頌, 故卒當登筵之際, 每必臨文玩義, 僅僅塞責, 語無倫脊矣. 其中心愧慙, 何可盡達? 至於進講周易時, 則不可以略干註說, 陳白文義, 若有俯詢之事, 全然不知之義, 何以仰答耶? 臣當自剴, 不欲行公矣.”

지 않았다. 座首는 글을 짓지는 못해도 어릴 적에 通史 두세 권은 공부한 터라 대략 몇 글자는 이해할 수 있어서, 이를 보고 몹시 괴이하게 여겼다.¹²⁾

위의 인용문은 영조, 정조대에 활동했던 李運永(1722~1794)이 저술한 필기야담집 『瀨尾編』 「科場」에 수록된 글이다. 문장을 짓지 못하는 어떤 座首가 科擧에 응시하게 되었는데 그의 사촌누이가 몰래 『表東人』의 冊張으로 약과를 감싸 科場에 들여보내 주었고, 座首는 배고픔에 약과를 꺼내 먹다가 冊張에 정서된 表文 1편이 科場에 내걸린 試題에 해당하는 表文임을 인지하고는 그대로 베껴 급제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일화를 통해 『表東人』은 일반 문장이 아닌 科表를 수록한 과거 수험서로, 당대 응시자들이 科表 작성 및 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했던 참고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書簡에서는 科試 참고서로서 『表東人』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이달 15일에 赤壁에서 科擧가 시행되는데 아주 성대한 일입니다. 혹시 科擧에 응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벼루를 씻고 기다리겠습니다. 『寒水齋集』은 이미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마침 봐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 부디 지금 인편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보내드린 『表東人』도 긴히 보고자 하니, 아울러 지금 인편에 보내주시시오. 나머지는 바빠서 이만 줄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¹³⁾

위의 인용문은 조선 후기 전라도 화순에서 활동했던 학자인 河百源(1781~1845)이 安壽祿(1776~1857)에게 1802년(순조2) 8월 6일에 보낸 서간이다. 河百源이 8월 16일에 화순의 赤壁에서 시행되는 科擧에 응시해야 하는데, 『表東人』이 긴히 필요하여 安壽祿에게 인편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表東人』이 숙

12) 李運永, 『瀨尾編』, 「科場」. “入場時從妹, 以藥果二立裹破冊張以贈之曰, “場中必虛膺, 出此啗之.” 是時座首探袖中, 出而啗之, 啗訖視冊張, 元來此冊張乃『表東人』. 冊張上精書表一篇竝書, 望則當題, 與試所懸題, 無一字加減. 座首雖不能作文, 兒時嘗受通史二三券, 能略解幾箇字, 見此心甚恠之.” 김경, 이진경(2020), 155면. 재인용.

13) 河百源, 「沙村候狀」, 순천 죽산안씨 송매정 소장본. “今月之旣望, 赤壁設場, 甚爲盛擧, 或有觀光之意否, 洗硯以待耳. 『寒水齋集』想已畢覽, 而適多有考閱處, 望須以今便回擲否? 企企. 曾去『表東人』, 亦欲緊覽, 并送今便否? 餘撓撓, 書不盡言. 惟希照亮.”

중, 영조 대를 거쳐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 기간 응시자들 사이에서 과거시험 대비 필독 참고서로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河百源의 서간 외에도 『表東人』이 科擧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했던 科試 참고서로 활용되었던 사실은 申佐模(1799~1877)의 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申佐模가 현종 연간 무렵에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서간에는 곧 시행될 節日製, 謁聖試, 庭試를 대비해 아들에게 도성으로 상경할 것을 당부하며 申光洙의 「金馬別曲」과 함께 『表東人』을 가지고 오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¹⁴⁾ 申佐模의 언급을 통해 『表東人』이 조선 후기 과거시험 대비 필독 참고서로 활용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위의 글에 언급된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表東人』은 조선 후기에 과거를 준비하던 응시자들 사이에서 필수적이고 실제적인 科試 참고서였던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瀨尾編』에 언급된 『表東人』은 본고에서 살펴본 고려대 『表東人』과는 체제와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텍스트인 듯하다. 『表東人』의 책장에 科表 1편이 정서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瀨尾編』에 언급된 『表東人』은 科表를 선집한 科表選集類의 科試 참고서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表東人’이라는 표제만 동일하고 실제 체제와 구성은 서로 다른 필사본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表東人’이라는 科試 참고서가 실제 존재하였고, 과거를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참고했던 자료였다는 사실만은 명확하다. 『表東人』이 조선 후기에 유통되었던 科試 참고서로 확인되고, 체제와 구성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하는 사실로 볼 때,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연구에 있어 주목을 요하는 자료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이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의를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表東人』은 『史記』, 『資治通鑑綱目』, 『漢書』, 『貞觀政要』 등의 다양한 역사서에 수록된 중국의 역대 황제와 관련된 고사를 활용하여 科表의 실제적 구성요소인 對偶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배열하여 작법에 활용하는지 그 실제적

14) 申佐模, 호남기록문화시스템 제공(<http://honam.chonbuk.ac.kr/subpage.jsp?chkman=10&id=15244>), “辛之元月旬一, 父上來時, 不得不率光奴表賦冊箱, 及吾之春衣持來可也. 進士所贈石北「金馬別曲」, 及吾之亂藁中一葉亭上梁文(時蓑筆), 及『表東人』英廟朝科表古東人割章細書者, 其中有「籍田」科表, 尹無號彌秉爲壯元矣, 細考持來可矣.”

양상을 보여주는 類抄類 참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類抄類 참고서들은 각 문체의 특성이나 주로 다루게 되는 주제 등에 맞춘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필요한 문구들을 찾아보거나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¹⁵⁾ 『表東人』은 체제와 구성면에서 볼 때 이러한 類抄類 참고서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히 『表東人』에 수록된 구절은 5·7, 6·7, 7·7자로 長句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表東人』은 類抄類 참고서 중에서도 전고를 인용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長句를 학습하는 데 특화된 참고서로 보인다.

둘째, 당대 科表 학습 과정에서 習作의 典範으로 여겨졌던 작품들을 살필 수 있는 科表選集類와는 달리 『表東人』은 보다 구체적인 科表 작성 과정의 실재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科表選集類는 응시자들이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학습한 典範이 되는 작품을 분류하고 정리한 選集으로, 당대 科表에서 典範이 되는 작품들을 두루 섭렵하고 이를 여러 번 읽고 모사하는 과정을 통해 科表를 학습했던 科文 학습 과정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러 科表選集 중에는 『麗林』과 『東麗文』이 대표적인 자료이다.¹⁶⁾ 이와는 달리 본고에서 살펴본 『表東人』은 科表를 작성하면서 科表의 주된 구성요소인 虛頭나 本文 등 완전한 단락이 아니라 그 하위요소이면서 科表의 실재를 이루는 對偶의 작법을 연습하고 단련하는 과정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다.

셋째, 『表東人』의 구성 및 체제에서 살펴보았듯이 「漢高祖」의 경우 『漢書』, 『史記』, 『資治通鑑』에서 추출한 주요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對句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科表의 작법에 적용하는 실재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다양한 科表選集類는 科表의 기본 구성인 虛頭-本文(初項, 次項, 回題, 結頭)-結尾가 구분되도록 단락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응하는 두 행의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2구씩 묶어서 기재되어 있다. 『表東人』에 수록된 對句 역시 2구씩 묶어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온전한 科表를 구성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서 『表東人』에 수록된 對句를 통해 科表의 기본이 되는 對偶의 학습뿐 아니라, 실제 科表를 작성할 때 적용하거나 응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表東人』은 科表

15) 이상욱(2015), 56면.

16) 『麗林』과 『東麗文』에 대해서는 박선이(2020). 참조.

학습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실제 科表 작성시에 필요한 참고서로서의 기능도 겸했던 科試 참고서라 하겠다.

넷째, 『表東人』에 수록된 구절은 실제 科表 작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로 科表의 문체가 정형화되었던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7세기 후반 이후로 科表의 정식이 확립되면서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형식 틀에 맞추어 科表의 각 단락에 내용을 채워넣는 방식이 科表 작성의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하여 유행하고 응시자들이 탐독한 科試 참고서가 바로 類抄類 참고서이다. 이 類抄類 참고서들을 응시자들이 빈번하게 활용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이전시대의 科表와 달리 조선 후기의 科表는 보다 투식화되고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¹⁷⁾ 『表東人』 역시 類抄類 참고서로, 조선 후기 응시자들이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실제 科場에서 漢, 唐, 宋을 주제로 한 科表를 작성할 때 科表의 정식에 맞추어 주제와 문맥에 맞게 적절한 문구를 선택하여 단락별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科表를 작성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로 의미를 지닌다.

4. 나가며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 소장 科試 참고서인 『表東人』을 대상으로 『表東人』의 구성 및 체제를 검토하고, 『表東人』이 科試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의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은 科試 참고서 가운데 類抄類 참고서에 속하는 자료로, 漢代~宋代 황제를 表題로 한 64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表東人』에 수록된 작품들은 역사서에 수록된 인물 및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고사들을 여러 對句로 조합하고 활용하는 양상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科表 작성과 학습의 실재를 엿볼 수 있다.

17) 조선 후기 科表 정식의 확립과 類抄類 참고서의 등장은 이상욱(2017), 181~188면, 참조.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이 科試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그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表東人』은 자료의 성격으로 볼 때, 역사서에 수록된 중국의 역대 황제와 관련된 고사를 활용하여 科表의 구성요소인 對偶를 갖춘 각 구절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작법에 활용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類抄類 참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당대 科表 학습 과정에서 習作의 典範으로 여겨졌던 작품들을 살필 수 있는 科表選集類와는 달리 『表東人』은 보다 구체적인 科表 작성 과정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인물고사와 사건고사를 활용한 다양한 對句의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故事를 科表의 작법에 적용하는 실재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表東人』은 조선 후기 科表가 정형화되는 일련의 양상과 그 흔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 소장본 『表東人』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치중하느라 『表東人』에 수록된 다양한 작품들을 실례로 제시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역사 관련 類書나 類抄類 참고서들과 폭넓게 비교하여 『表東人』에 수록된 구절을 면밀히 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 『表東人』에 수록된 작품들과 조선 후기 科場에서 제출되었던 試券 간의 비교를 통해 『表東人』이 試券 작성 시에 활용되었던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로서 지니는 자료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表東人』,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D5 A125]
 『表東人』,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오) 812.1 표동인]
 『表東人』,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古802-표동인]
 『表東人』,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古克 811.9-표동인]

김경, 이진경(2020), 「諧謔性으로 바라본 『穎尾編 科場』의 특징과 의미」, 『大東漢文學』 제64집, 대동한문학회, 155면.

박선이(2020), 「조선 후기 科文選集 『麗林』에 대하여 -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KC』 제50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53~279면.

박현순(2021), 「조선후기 科文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제83집, 한국한문학회, 77~126면.

백진우(2014),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東萊博議』 수용의 의의」, 『韓國漢文學研究』 제54집, 한국한문학회, 173~214면.

심경호(2015), 「조선의 科擧와 參考書, 그리고 韻書」, 『열상고전연구』 제46집, 열상고전연구회, 327~369면.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1~234면.

이상욱(2017),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 科表 작성을 위한 참고서를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제53집, 대동한문학회, 181~188면.

황위주(2014), 「『離騷遺香』을 통해 본 조선후기 ‘科賦’의 출제와 답안 양상」, 『大東漢文學』 제40집, 대동한문학회, 5~41면.

허경진, 최영화(2014), 「科試 참고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受驗 문화의 한 국면 - 科文 規式 참고서를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제40집, 열상고전연구회, 39~61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KORCIS (<http://www.nl.go.kr/korcis/>)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DB (<http://sjw.history.go.kr/main.do>)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A Study on Civil Test Book, Pyodongin(表東人), During Late Joseon Dynasty

Park, Seon-yi*

While Pyodongin(表東人) has been mentioned in Late Joseon Dynasty's collection of stories and individual letters in relation to sentence learning and civil test learning, there have not been active researches on Pyodongin(表東人) yet. This paper found out that five manuscripts are kept at Keimyung University,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libraries. Among these manuscripts, [Mansong D5 A125] largely differed from the previous civil test books in aspects of the system and composition and its characteristics are clearly different from other civil test books kept at other libraries.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such characteristics, reviewed the composition and system of Pyodongin(表東人) by focusing on the civil test book kept at Korea University library, and clarified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Pyodongin(表東人) as the civil test book.

Pyodongin(表東人) kept at Korea University is a civil test book that includes 64 literary works about the emperors from Han(漢) Dynasty to Song(宋) Dynasty. The literary works included in Pyodongin(表東人) combine and utilize various idioms about the figures and events recorded in the historical books to make corresponding antithesis sentences. Pyodongin(表東人) hints how Gwapyo(科表) prepared and learned at that time.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Korea University's Pyodongin(表東人) as a civil test book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yodongin(表東人) holds significance as a test book that clearly shows how contrapositive phrases are used in writing

* a joint researche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dudu0218@naver.com

by utilizing the idioms related to the Chinese emperors. Secondly, Pyodongin(表東人) holds significance for showing the process of writing Gwapyo(科表) in details unlike the Collection of Gwapyo(科表) which included the exemplary drafts for learning Gwapyo(科表). Third, Pyodongin(表東人) holds significance for showing how historical stories can be actually used in writing Gwapyo(科表) by coming up with various antithesis sentences about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Fourth, Pyodongin(表東人) shows the process and evidences on how Gwapyo(科表) was standardiz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Civil test book, Gwamun(科文), Gwapyo(科表), Pyodongin(表東人)